

 금융감독원		보 도 자 료		금융은  하게 소비자는  행복하게	
보도	2024.2.6.(화) 석간	배포	2024.2.5.(월)		
담당부서	분쟁조정1국 분쟁조정기획팀	책임자	팀 장	김동하	(02-3145-5212)
		담당자	수석조사역 조사역	김상희 윤호연	(02-3145-5216) (02-3145-5217)
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-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 -					

주요 내용

- ◆ 금융감독원은 최근 접수·처리된 분쟁내용 및 처리결과를 금융 권역별로 분석하여 금융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발굴·안내하고 있음
- 겨울철에는 화재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,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 보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
- 특히,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화재에 취약하고, 그에 따른 경제적 위험도 큰 편이므로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어 화재위험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

[소비자 유의사항 주요내용]

- ① 주택을 제외한 일반, 공장 화재보험에서는 가스 폭발 사고 등 폭발·파열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.
- ② 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, 주소변경 사실은 반드시 통지하여야 합니다.
- ③ 손해액 산정시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, 경과년수 등을 반영하여 감가상각될 수 있습니다.
- ④ 목적물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한 경우 가입한 비율만큼의 손해를 보상(비례보상)합니다.
- ⑤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더라도 임차인이 해당건물의 보험료를 부담하였다면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하지 않습니다.

※ 본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,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 개별 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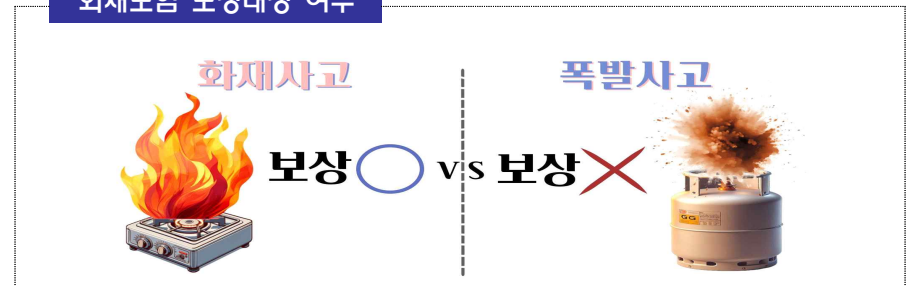
주택을 제외한 일반·공장 화재보험에서는 가스 폭발 사고 등 폭발·파열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

[분쟁 사례]

- 식당 사장님 김○○은 LPG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로 내부 집기, 비품이 훼손되어 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나, 다행히 화재로 번지지 않는
- 본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손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, 보험사는 화재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
- ➔ 화재는 열 또는 빛을 수반하는 연소현상인 불로 인한 재앙을 의미하는데, LPG 가스 폭발*은 불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급격한 산화반응으로서 화재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이 불가

* 약관에서는 폭발, 파열을 '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한다'고 규정

화재보험 보상대상 여부



< 소비자 유의사항 >

- ① 일반화재, 공장화재 보험의 화재담보에서는 폭발, 파열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. (단, 주택화재 보험은 폭발, 파열도 보상)
- ② 보험사는 화재담보와 폭발·파열 담보를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으며, 가입자는 보장범위를 선택하여 추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.

TIP!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은 「**구내 폭발, 파열 손해 특약**」 등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.

2-1 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이 청약서, 보험증권에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

[분쟁 사례]

- 정육 도매업 사장님 백○○은 매장 밖 창고에 발생한 화재로 1,000만원 상당의 원자재가 소실되는 손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, 보험사는 해당 창고가 보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
 - 보험증권에는 보험목적물이 '서울시 영등포구 금소대로 38 00한우, 건물 1층, 면적 100m²로 기재되었으나, 창고는 증권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주소지에 30m² 면적의 컨테이너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
- ➔ 약관상 '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'에 발생한 화재손해를 보상하는데, 지번, 면적 등에 비추어 해당창고는 보험목적물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곤란

보장대상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



< 소비자 유의사항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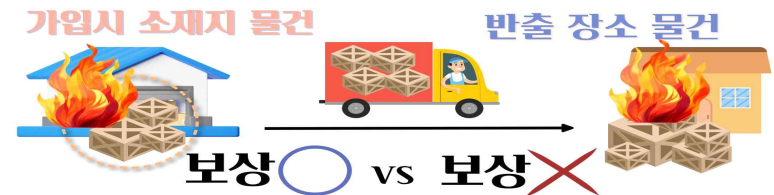
- ① 청약서에 목적물의 지번·면적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, 계약체결 후 교부받은 증권의 기재가 정확한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특히, 주건물과 별도인 부속건물, 창고 등의 경우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장대상임을 가급적 따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② 부속건물이나 창고 등을 포함하기로 하고 설계사에 구두로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증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.

2-2 보험목적물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주소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

[분쟁 사례]

- 의류 수출업체 사장님 김○○은 화재가 발생하여 창고에 보관중이던 의류 재고자산 3,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
 - 의류재고가 수시로 반출입 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'창고(소재지 A) 내 수용된 의류재고'를 보험목적물로 지정(총괄보험)하였으나, 다른 창고(소재지 B)로 이사하면서 목적물 소재지를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음
 - 보험사는 이사 이후 창고에 보관된 의류재고는 보험가입시 보상하기로 약정한 보험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
- ➔ 이러한 총괄보험의 경우 목적물 소재지에서 반출되면 해당물건은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되므로, 소재지 변경 통지 없이 이사한 곳에서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대상으로 보기 곤란

소재지 통지를 누락한 경우



< 소비자 유의사항 >

- ① 창고 등 일정한 장소내에서 수시로 물건의 반출입이 예정된 경우 일정한 소재지 내 물건을 보장대상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- ② 이러한 형태의 보험계약에서는 보장대상 물건이 지정된 소재지를 벗어나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TIP! 사업장 이전 등으로 목적물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, 반드시 그리고 지체없이 보험사에 주소 이전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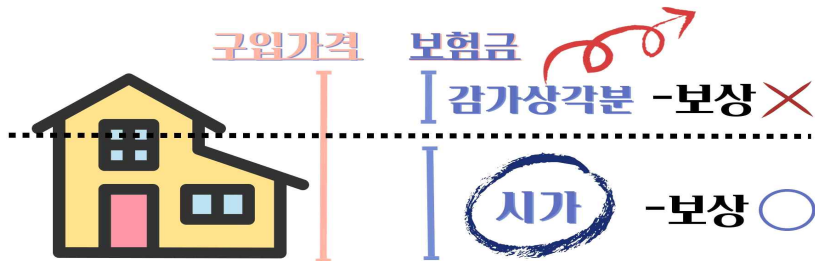
3

손해액 산정시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, 경과년수 등을 반영하여 감가상각될 수 있습니다

[분쟁 사례]

- 펜션을 운영하는 사장님 정○○은 펜션 건물이 화재로 전소되어, 신축비용 전액금액 10억원의 보상을 요구하였으나, 보험사는 경과년수 15년을 감안하여 감가상각분을 공제하고 8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회신
- ➔ 보험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사고 당시의 시가이며, 시가 산정시 목적물의 내구년한, 경과년수 등을 고려한 감가상각을 반영하므로 신축비용 전액 보상요구는 수용이 어려움

손해액 산정기준



< 소비자 유의사항 >

- ① 화재보험은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사고 당시의 실제손해인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.
 - ② 고정자산의 경우 신축비용(제조달가액)에서 감가상각을 공제하며, 감가상각시 내구년한, 경과년수 등을 반영합니다.
- 일부 파손에 따른 수리비의 경우에도 감가상각이 적용됩니다.

TIP! 시가가 아닌 **신가로 보상하기로 하는 특약** 「건물 복구비용 지원 특약」 등에 가입하는 경우 신축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

4

목적물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한 경우 가입한 비율 만큼의 손해를 보상(비례보상)합니다

[분쟁 사례]

-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장님 임○○은 낙뢰로 주유기가 파손되어 수리비용 4백만원의 손해를 입었고, 해당 손해액 전부를 보험금으로 청구
- 주유기의 시가(보험가액)는 4천만원이었고, 보험가입시 보험가입금액을 1천만원으로 설정하였으나, 계약자는 실제 손해가 보험가입금액 이내라면서 손해액 전부의 보상을 주장(벼락도 화재에 포함)
- ➔ 해당계약은 목적물 시가(보험가액)의 일부만을 보험에 가입한 일부보험이므로, 보험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가입비율에 비례한 손해액임
- 화재보험은 약관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

$$[\text{약관}] \quad \text{손해액} \times \frac{\text{보험가입금액}}{\text{보험가액}}, \quad [\text{사례적용}] \quad 4\text{백만원} \times \frac{1\text{천만원}}{4\text{천만원}} = 1\text{백만원}$$

< 소비자 유의사항 >

- 보험가입시 **보험가입금액**은 목적물의 가치(보험가액)에 맞게 적절히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실제 가치를 초과하여 가입한 경우(초과보험) 보험료 부담은 커지나, 지급 보험금이 늘지는 않습니다. (실제 손해액 한도)
- 반면, 실제 가치보다 적은 금액으로 가입한 경우(일부보험) 비례보상원칙에 따라 실제 손해액의 일부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.

TIP! 「**실손보상형 특약**」 가입시 약정한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는 가입비율과 관계없이 손해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

<보험가입금액 설정에 따른 예시>

구분		보험가액 (목적물의 가치)	보험가입금액 (최대 지급가능금액)	손해액	지급 보험금
비례	초과보험	10억	12억	6억	6억
보상	전부보험		10억		6억
형	일부보험		5억		3억 ^(비)
실손보상형(특약)			5억		5억 ^(실)

^(비) 손해액 6억원 X 보험가입금액 5억원 / 보험가액 10억원, ^(실) Min[보험가입금액, 손해액]

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, 임차인이 해당 건물의 보험료를 부담하였다면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하지 않습니다

[분쟁 사례]

- 상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중인 사장님 박○○은 조리 중 가스불을 끄지않아 임차건물 일부를 태웠고, 2천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
 - 임차인이 직접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, 임차인이 납부한 상가 관리비에는 해당 건물의 화재보험료가 포함
 - 해당 건물에 상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계약자로 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는데
 - 보험사는 건물 소유주에게 복구비용 손해를 보상한 후 손해발생의 책임이 있는 임차인에게 해당 비용을 구상(보험자대위)
- ➔ 임차인이 관리비를 통해 해당 건물의 화재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보험사는 해당 임차인에게 구상청구 불가

화재보험료 부담 임차인에 대한 구상가능 여부



< 소비자 유의사항 >

- ① 건물 소유자에게 화재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목적물 훼손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급 보험금 범위 내에서 구상할 수 있습니다.
- ② 종래 법원은 임차인이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대위권 행사의 대상으로 판단,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구상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. (대법원 2011다94141 판결 등)
- ③ 그러나, 계약의 실질관계에 비추어 보험의 이익을 받으려고 보험료를 납부한 임차인의 기대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,
 - 금감원은 약관 개정을 통해 '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임차인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'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대위권 포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.('21년 시행)

TIP! 임차인은 보험사로부터 구상을 청구받은 경우 **화재보험료 부담 사실을 증명하여 적극 항변**하시기 바랍니다.

- 보험의 목적(보험 목적물) :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
 -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, 시설, 집기·비품, 재고자산 등
 - 총괄보험의 경우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하며 보험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
- 보험가입금액 : 보험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
- 보험가액 :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(보험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)
- 초과보험 : 어떤 물건에 붙인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이 그 물건의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
- 전부보험 :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설정한 보험
- 일부보험 : 어떤 물건에 붙인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이 그 물건의 보험가액에 달하지 않은 보험
- 비례보상 원칙 :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의 부담은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는 원칙

$$\text{지급보험금} = \text{손해액} \times \frac{\text{보험가입금액}}{\text{보험가액}}$$
- 실손보상형 특약 :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가액보다 낮게 설정한 경우에도 비례보상 방식이 아니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(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)를 보상하기로 하는 특별약관
- 신가보상 특약 :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입은 실손해를 보상하는 대신 신품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하는 특별약관
- 보험자대위(구상) :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